

대학평의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6.06.27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9명

1. 회의일시 : 2016년 7월 05일(화) 오후 4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박종운, 김원수, 황철하, 김석주, 김태환

나. 불참의원 : 김홍수, 김석주

4. 회의안건




제1안 : 2016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차 대학평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날씨
가 좋지 않음에도 참석해주신 대학평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러면 지금부터 대학평의회 부의 안건인 2016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무지원팀장 김경한입니다. 2016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7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대학이 3월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외국인의 경우 9월 입학 수요가
있어서 학칙개정을 통해 9월 기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
니다. 또한 요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입생 M.T 등 학생집단활동시 인
권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집단활동에 대한 책임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라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대학평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5조에서 2017년도 신입생의
마케팅관리과의 입학정원을 80명에서 62명으로, 경영정보과의 입학정원을 6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여 구조개혁과 특성화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고, 재난시설안전과의
과명을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하고자 재난건설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6조(입학시기)에서 입학 허가시기가 "학년도"로 되어있는 것
을 "매학기"로 개정하여 추후 외국인 등 9월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대학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의
일환으로 학칙에 학생 집단 활동에 대한 책임자 지정의 문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	-------------------------------------------------------------------------------------	------------	-------------------------------------------------------------------------------------	------------	---------------------------------------------------------------------------------------

이어 제83조(공고기간)에서 학칙의 개정시 20일 이상 공고를 명시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 장) 교무지원팀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균 의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의견조율은 다 끝났습니까?

(교무지원팀장) 예 이미 학과회의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부서장회의 등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의 장) 변경안인 재난시설안전과와 재난건설안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맥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무지원팀장)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바와 같이 시설보다는 건설이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정하는데 유리합니다.

(김택균 의원) 건설이라 하면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보다는 건설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은 완성된 건축물에만 해당되는데 건설안전은 시설 완공 전부터 대부분의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명구 의원) 용어적으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균 의원) 재난과 안전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정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83조의 공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교육부나 상위기관에서 변경하라는 권고사항이 없었다면 현행 학칙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5조의 2의 신설은 대학은 성인들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과나 학생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학생행사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적규제를 학칙에 명시하고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므로, 대학 내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목적과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도, 성문제 교육과 같이 정기적으로 학교행사로 진행하고 문서로 사전 지도를 했다는 것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 장) 학생집단활동의 문제는 앞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이고 근래 표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차제에 대학에서 학생집단활동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생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행사 때에 학생들에게 유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칙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학교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균 의원)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가 진행될 때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행사의 목적과 지도교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승인되어 공식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	-------------------------------------------------------------------------------------	------------	-------------------------------------------------------------------------------------	------------	---------------------------------------------------------------------------------------

(박종운 의원) 학과의 명칭변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못하게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과의 의견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같습니다. 그리고 학칙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되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 장)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입학정원문제와 입학시기, 제65조2의 신설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학과명칭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건설안전과”로 변경하는 안이 학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이 된다면,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의 확인으로 결정) 제83조의 학칙개정시 공고기간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학칙개정안에 관해 다른 심의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은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심의(안)대로 확정 선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 의원, 김원수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6:43분 산회)

2016년 7월 5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 이 명 환

부의장 : 장 수 진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이 명 구

평의원 : 박 종 운

평의원 : 김 원 수

평의원 : 김 흥 수

평의원 : 황 철 하

평의원 : 김 석 주

평의원 : 김 태 환